

<북한주민 의식조사>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실태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은영

조사 의의

조사 시점 1년 이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조사

-> 김정은 집권 시기의 탈북 동기 및 형태 변화, 탈북민의 구성을 파악
직행 탈북 (탈북 후 입국까지 평균 3개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사회적응 실태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 탈북 후 단 시일 내에 입국한 이들이 남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
하며 적응해 가는가를 살피는 것은 추후, 통일된 한반도에서의 북한 사람의 남
한 사람에 대한 인식과 통일 한반도에서의 적응 과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조사 항목 (조사 년도/ 관측치)

- 탈북 결심 이유 (2018-2020)
-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2011-2020)
- 남한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포용성 (2011-2020)
-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정체성 (2011-2020)
- 남한생활 만족도 (2012-2020)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만족도 (2012-2020)
- 정부지원 외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만족도 (2018-2020)
-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 (2018-2019)
- 남한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2017-2020)
- 탈북후회 (201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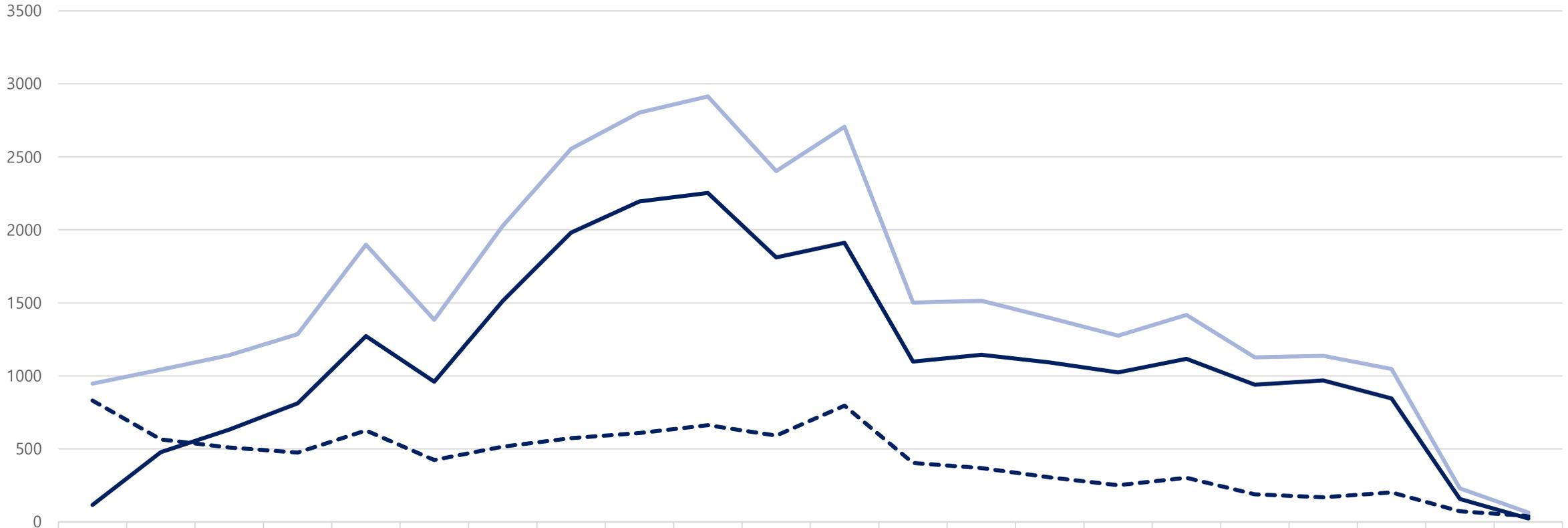
조사 방법

- 설문조사 분석
-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
 - 2021년 8월 23일 ~ 2021년 10월 16일
 - 11명 (남 3, 여8)
 - 서울, 경기 거주

탈북과 정체성

- 1) 탈북과 남한입국 추이 변화
- 2) 탈북 동기
- 3)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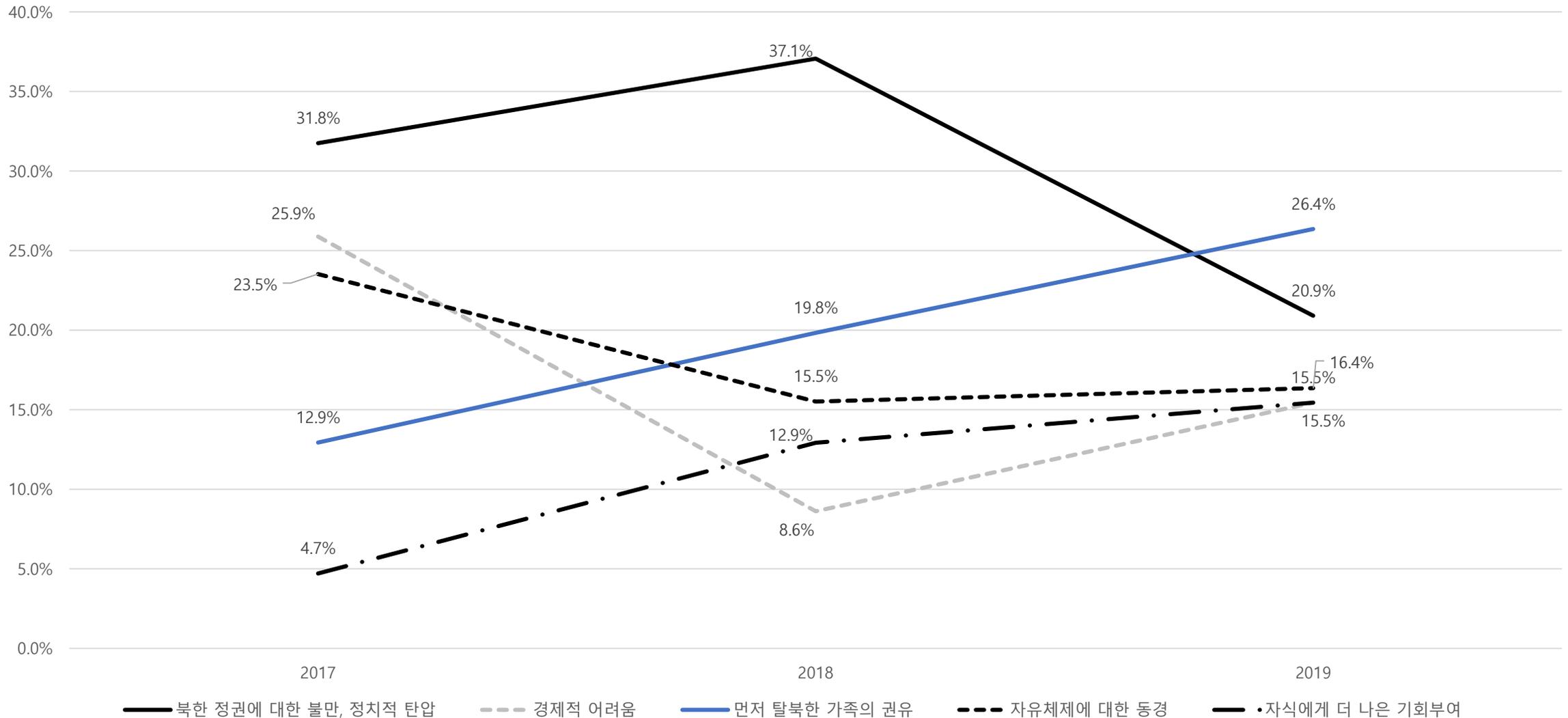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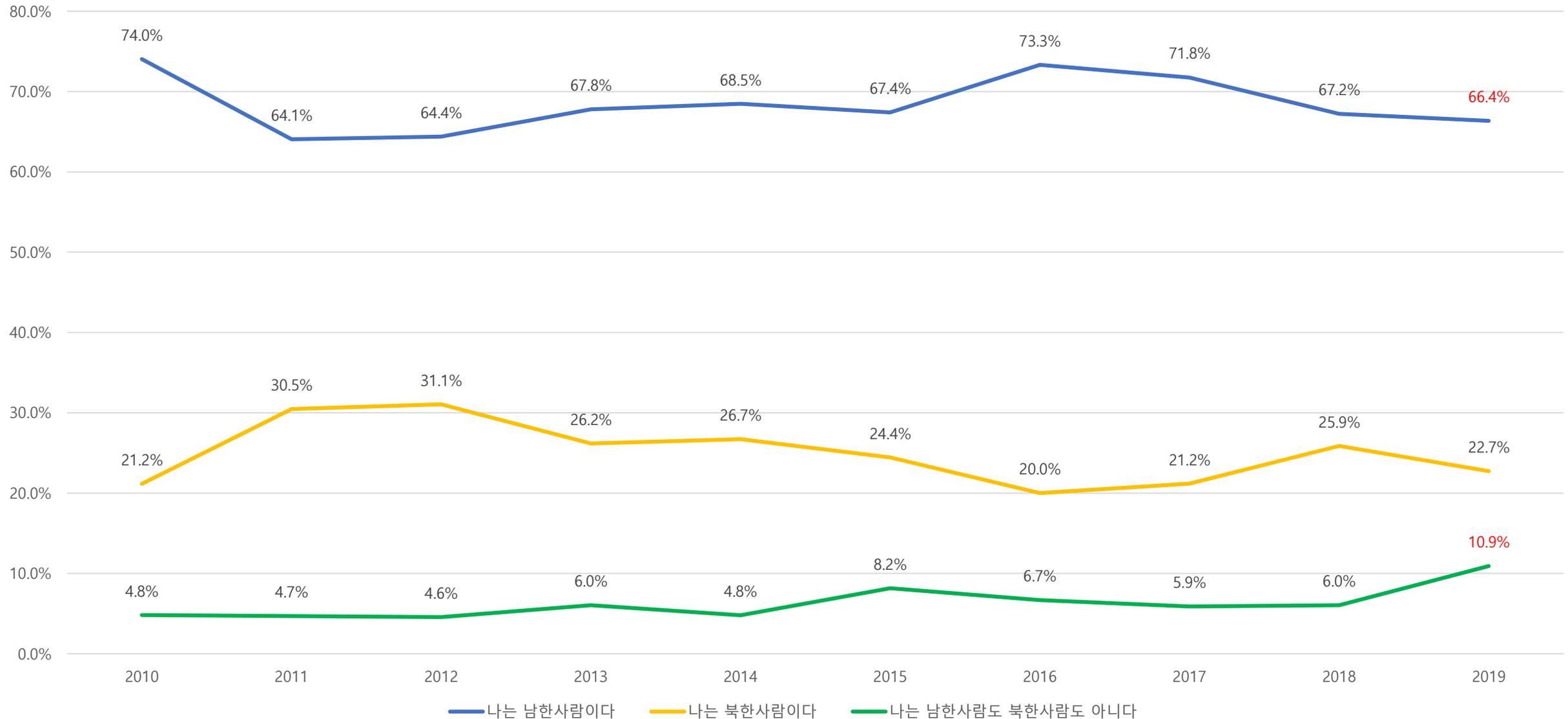
	1998년 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12월
---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 남(명) — 여(명) — 합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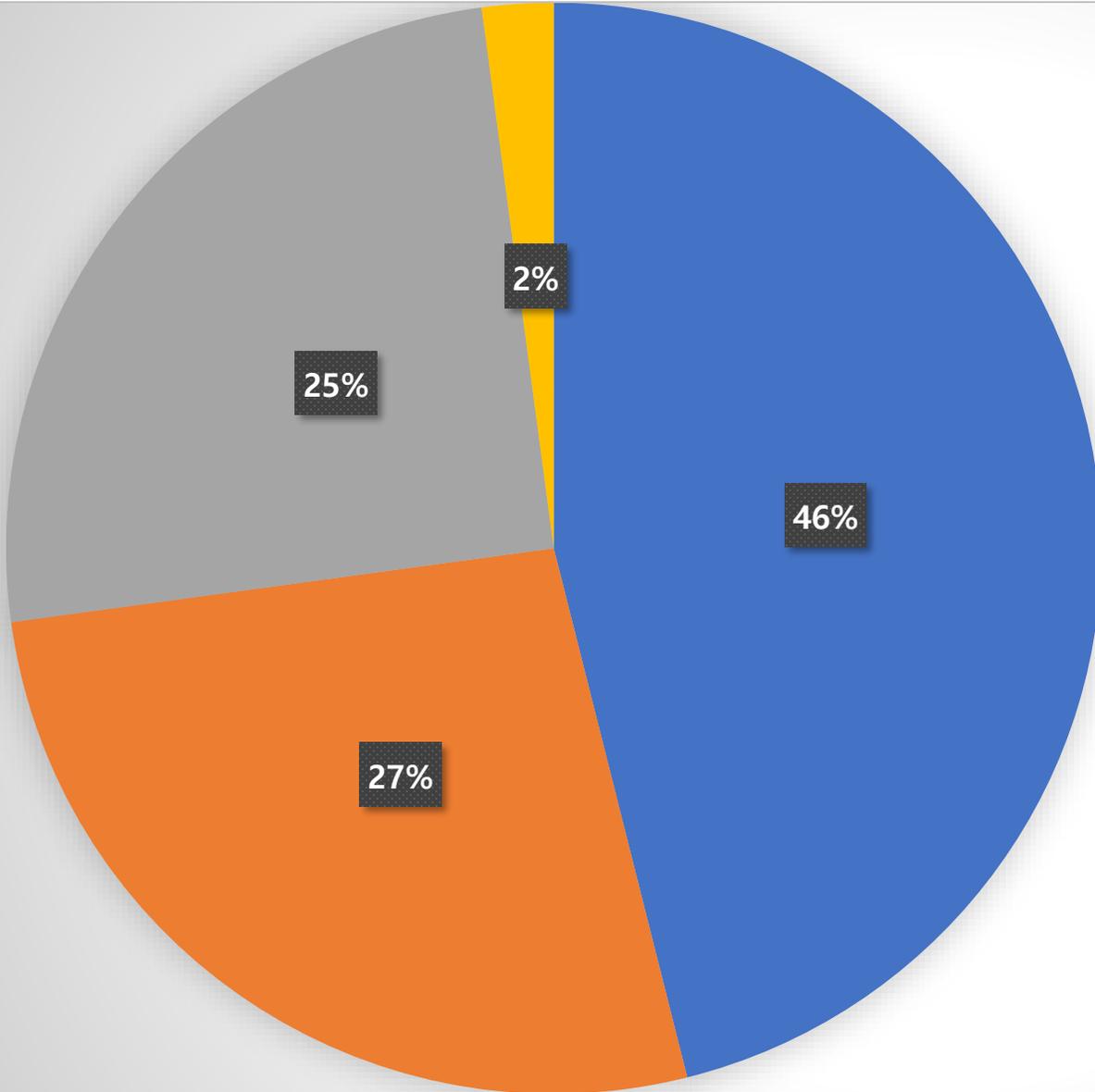
귀하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귀하는 남한에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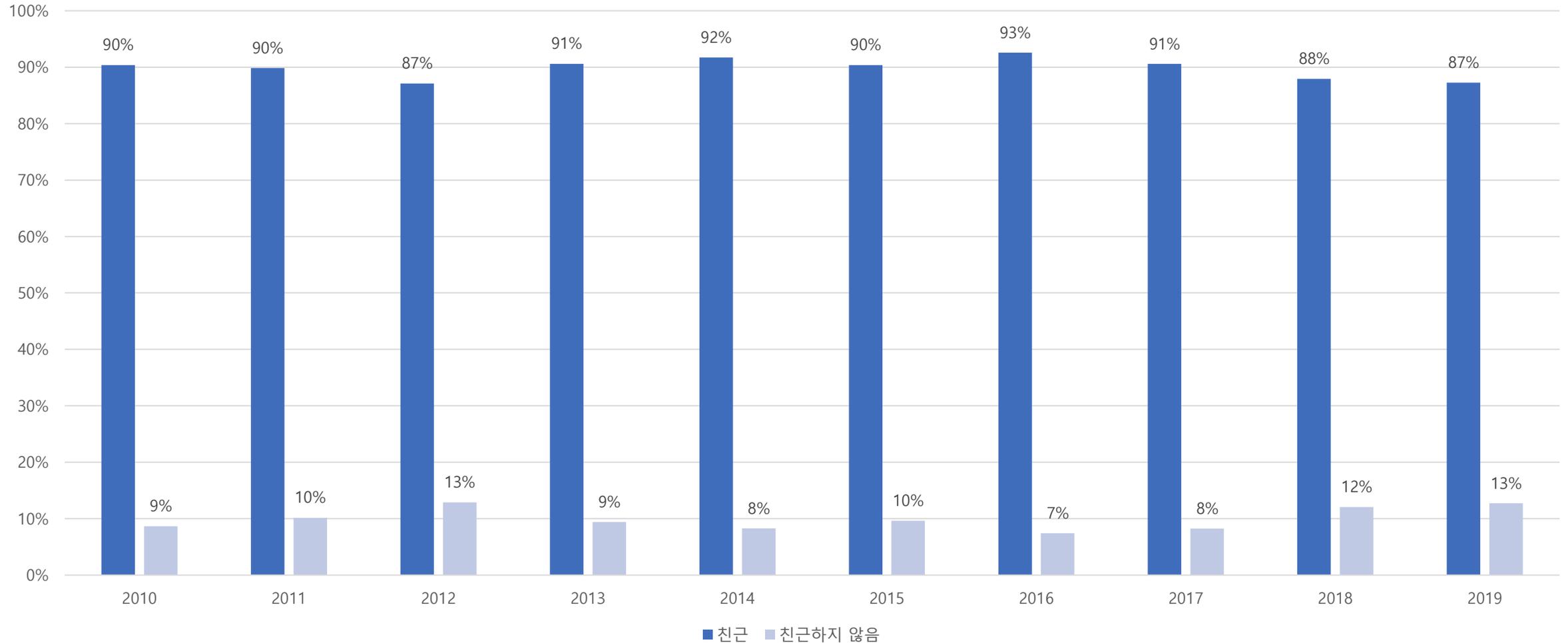
- 남한에 살 것이다
- 북한에 살 것이다
-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살 것이다
-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 최은영: 만약에 통일이 되면 선생님은 어디서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고향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통일이 됐으니까 어디든 원하는 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 면담자 3: 저는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살기는 여기서 그냥 살 거예요. 여기서 살고 거기에 어떤 돈 지급을 마련할 것인가 구상을 하는 거죠. 빨리 들어가서 직업을 갖든가 관광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하죠. 돈 벌거. 왜 그러냐면 부모 형제 거기 있으니까 그쪽에 자리 잡고 돈 버는 수단을 마련하고. 내가 또 거기 가서 살고 하겠어요? 떠나고 일단 이 땅에 왔으면 이 땅에 사는 거죠. 이 땅에 뼈를 묻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땅에 터를 잡고 살면 내가 또 거기 가서 살겠어요? ... 일단 발을 붙였으니까 사실 거기 산 좋고 물 좋아서 공기도 맑고. 내가 그 땅을 배반하고 왔는데 또 거기에 가요? 그건 아니죠.
- 최은영: : 사실 배반이 아니고 이주한 건데
- 면담자 3: 다들 배반이라고 보니까. 제 부모 다 버리고 오고. 형제한테 말도 못하고 도망쳐 왔는데. ... 또 가면 여기를 또 배반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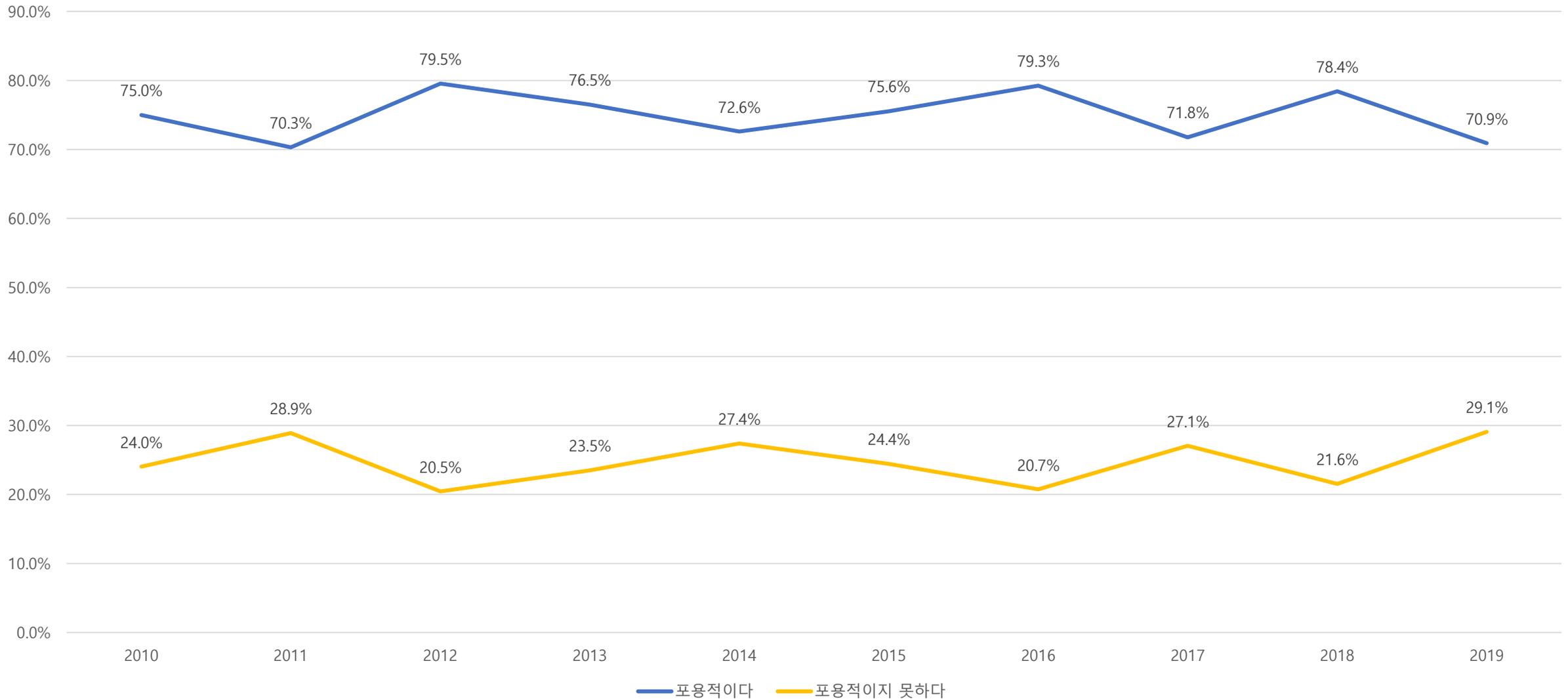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사회의 포용성

- 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 2) 남한주민의 포용성

남한주민을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십니까?



남한사람들의 탈북민에 대한 포용성



친근감과 포용성

- 지난 5년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람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이 93%에서 87%로 꾸준히 감소하였고, 친근하지 않다는 7%에서 13%로 증가.
- 남한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을 포용적으로 대하는가에 대해서는 2015년 '매우 포용적이다'라는 응답이 31.1%에서 2019년 22.7%로 꾸준히 감소.
- 여성이 남성보다 남한주민을 친근하게 느끼고, 남한주민이 탈북민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인식
- 연령이 높을수록 남한주민을 친근하게 느끼고, 남한주민이 탈북민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인식
-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남한주민이 탈북민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낮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주민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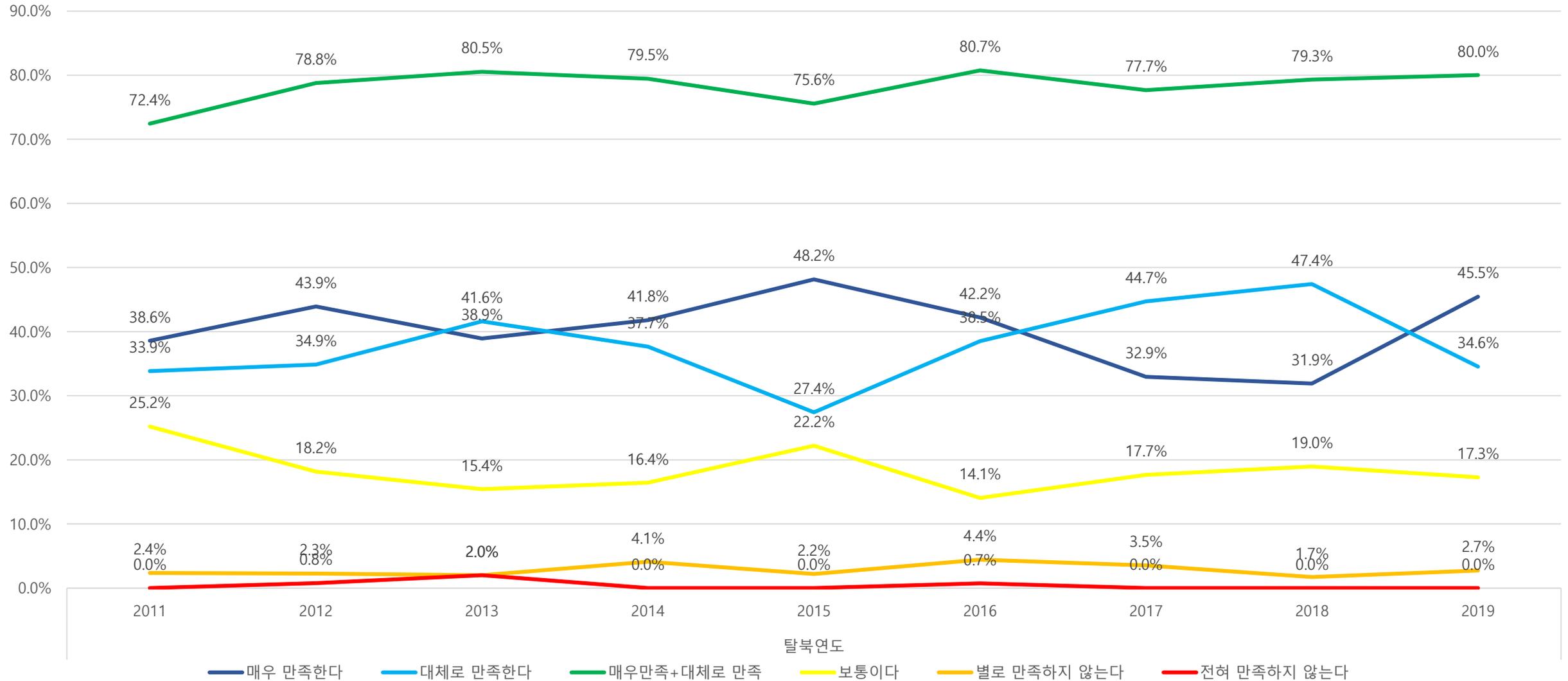
친근감과 포용성 - 심층면담

“남한 주민은 매우 친절해요. 그래서 저는 남한주민이 친근해요. 말투도 친절하고, 길을 물으면 직접 데려다주기까지 해요. 그래서 남한사람이 참 친절하다고 느끼지만, 친절한데 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 아니면 관심 자체가 없는거 같아요. 친절한 말투 딱 거기까지예요.”

남한생활에 대한 환상과 부적응, 만족과 어려움

- 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 2) 남한주민의 포용성
- 3)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만족도

남한생활 만족도



탈북을 결심한 이유에 따른 남한 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한다	대체로 만족 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계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	38.3%	41.49%	18.09%	2.13%	-	0%	30.1% (94)
경제적 어려움	44.9%	36.73%	16.33%	0%	-	2.04%	15.71% (49)
먼저 탈북한 가족 권유	31.75%	46.03%	19.05%	3.17%	-	0%	20.19% (63)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26.79%	46.43%	21.43%	5.36%	-	0%	17.95% (56)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 부여	50%	36.11%	11.11%	2.78%	-	0%	11.54% (36)
응답오류	28.57%	50%	21.43%	0%	-	0%	4.49% (14)
합계	36.86%	42.31%	17.95%	2.56%	-	0.32%	100%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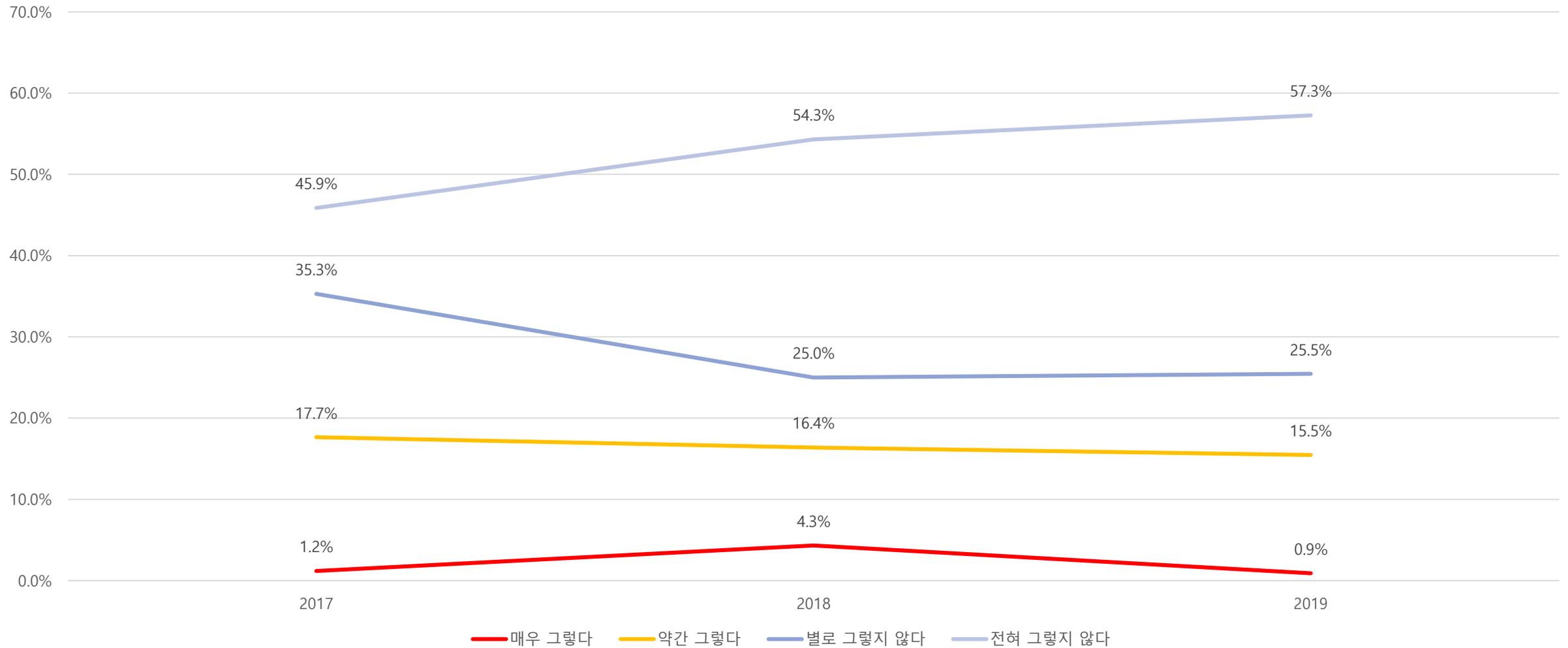
남한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총합
문화적 차이	25.90% (115)	52.70% (234)	15.99% (71)	4.73(21)	0.68%(3)	100%(444)
건강문제	8.11% (36)	20.05% (89)	40.09% (178)	30.18(134)	1.58%(7)	100%(444)
경제적문제	24.32% (108)	42.12% (187)	23.87% (106)	8.33(37)	1.35%(6)	100%(444)
인간관계	8.56% (38)	27.25% (121)	45.50% (202)	17.34(77)	1.35%(6)	100%(444)
사회적 편견	11.49% (51)	38.29% (170)	38.06% (169)	11.04(49)	1.13%(5)	100%(444)
심리적 외로움	23.65% (105)	34.68% (154)	23.65% (105)	17.12(76)	0.90%(4)	100%(444)

남한에서 느끼는 어려움	전체조사자 (총 444명, 2016-2019) 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	탈북을 후회하는 사람 (총 58명, 2016-2019) 매우 어렵다 + 다소 어렵다
문화적 차이	78.6%	84.48%
건강 문제	28.16%	39.65%
경제적 문제	66.44%	65.52%
인간관계	35.25%	44.82%
사회적 편견	49.78%	62.07%
심리적 외로움	58.33%	70.69%

“왜 그런지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과 의욕이 왜 없어질까요? 희망과 기대가 자꾸 허물어지거든요. 그리고 막 왔을 때는 의욕이 있었고, 북한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올 때는 아무리 힘든 거라도 다 할 수 있고 이겨내자 했는데, 여기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태어나 나이 먹고 살았으니까 저기서는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땅은 금방 왔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온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빠르면 3년~5년 있어야 조금 보인대요. 뭘 해야 하고, 나한테 뭐가 적성에 맞는지, 이런 걸 안대요. 5년까지 정착 못하면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까지만 버티며 살아보라고 해요. 부딪쳐 보라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데 코로나로 갇혀만 있으니 뭘 시도도 못해보고 답답해요. 북에 돈도 보내야 하는데 꿈쩍을 못하고. 앞이 안보여 그냥 어지러워요. 내가 이 땅에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 외로워서 여기 와서 계속 울었어요.” (30대 후반 탈북 여성)

귀하는 탈북 후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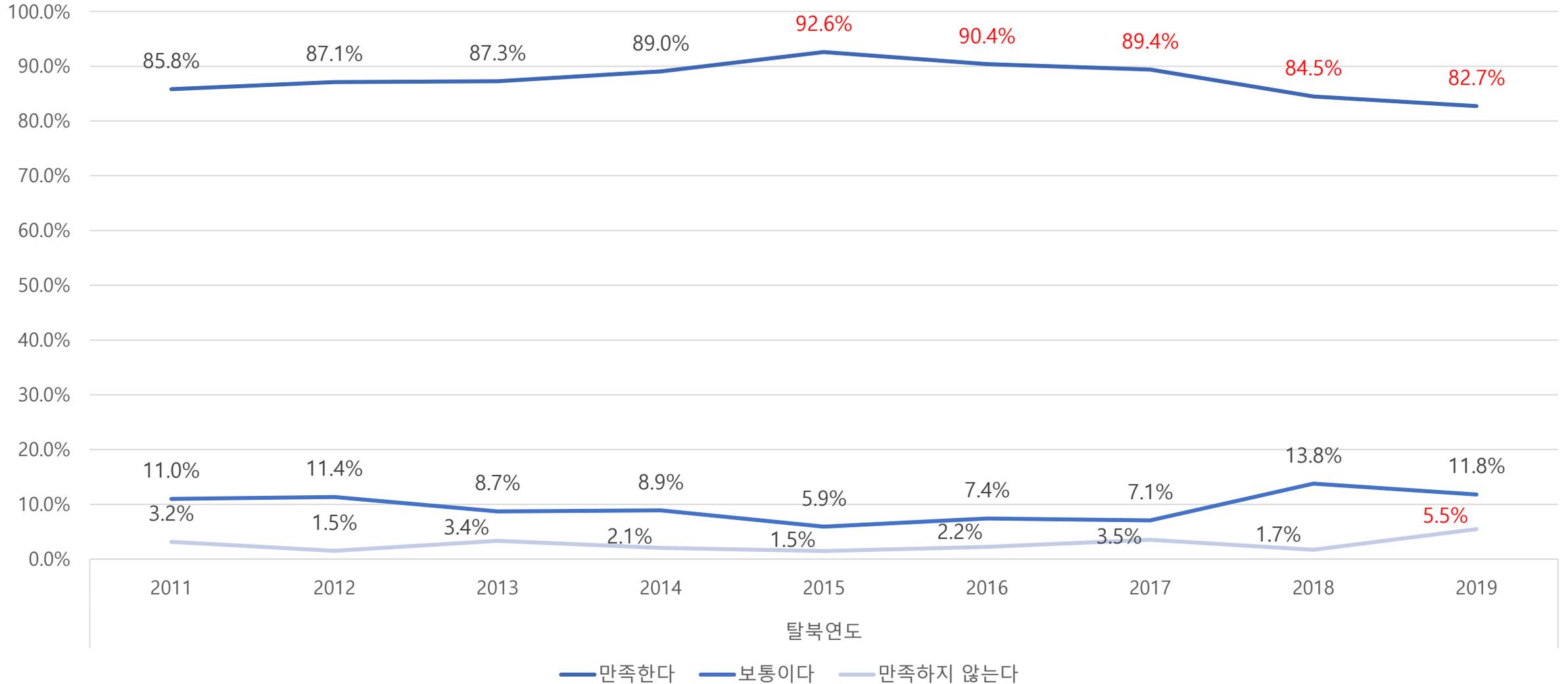


탈북 후회와 관한 타 기관 조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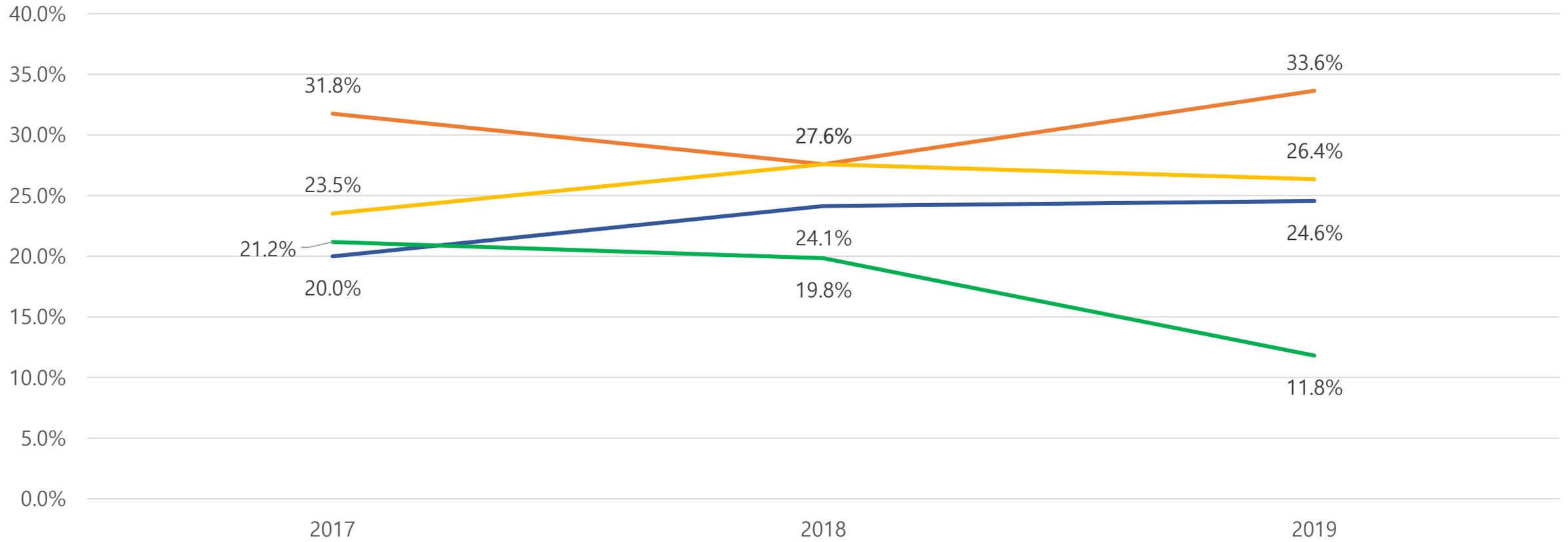
-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
 - 남한생활 불만족 1위 –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 (25.8%)

-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 통합실태”
 -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Yes (14.8%)
 - ‘가족이 그리워서’ (34.9%)
 - ‘고향이 그리워서’ (33.7%)
 - ‘남한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25.6%)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귀하가 남한 생활을 하는데 있어 정부 지원 외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 NGO 등 민간단체의 지원 —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지원 —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의 도움 —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결론

-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통제의 강화되었으며 탈북 동기, 탈북 형태가 변화함
- 조사 대상 북한 이탈주민 80%가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였지만 만족하지 않는 20%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응답자의 18.59%가 남한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 탈북민 자살율, 탈남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탈북 후회할 하는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더 세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입국한 이들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북한이탈주민은 남성에 비해 여성, 또 연령대가 높을 수록 남한 주민을 친근하게 느끼고 남한 사람이 포용적이라고 생각.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포용적이지 않다고 생각. 엘리트 탈북민과 MZ세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